

다산포럼

총선을 지나며



김정남 언론인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치러지는 선거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결과도 뻔해 보였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깎’도 되지 않는 정권 핵심부 사람들의 저질스럽고 돌출적인 언행들이 난무하는 것을 놓고 “육갑·꿀값 다 떼다”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육갑·꿀값이 다 연출되었다.

지금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 내지 심판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권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장(場)이 되어야 했다. 그 3년 동안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높아졌으며, 전셋값은 폭등하고,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그야말로 ‘헬조선’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역사인식은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퇴행을 거듭했다. 그들의 말대로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나 토론은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지조차 않았다.

안철수·김종인이 보여준 풍경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개의 풍경만은 차제에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작년 12월 13일, 안철수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총선 정국은 시작되었다. 그의 탈당에 뒤이는 연쇄 탈당은 한때, 어쩌면 한국의 정치 지형과 정치 행태를 바꾸어 낼 수 있는 모처럼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적 전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그때 그가 만약 자신을 더 낮추고 신망 있는 인사들을 삼고초려로 광범하게 영입, “나를 뒀고 나를 도구로 삼아 함께 일어서자”고 했더라면 선거 판도는 그때부터 달라졌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연쇄 탈당으로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색깔을 바꿔 달라고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선거 정국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색깔 바꾸기란 명분 아래 민주화의 가치가 폄하되고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천으

로 유인태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감회에 사로잡혔다. 다행히 유인태는 내 언젠가 이러한 날이 올 줄 알면서도 일찍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지 못해 이런 수모를 겪는다면 애써 장자지풍(長者之風)을 보여 주었지만, 나는 ‘김종인이 유인태를 날린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언젠가 노무현은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리가 패배한 역사라고 말한 바 있는데, 드러난 행적만을 놓고 본다면 김종인이야말로 기회주의와 불의에 편승한 삶을 살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하고 경제민주화의 지적소유권을 내세워 여·야를 넘나들며 4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유인태는 1974년의 민정학원 사건의 주역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바 있던 민주화의 산파였으며, 3선에 걸친 의정 활동의 과정에서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야로부터 신뢰를 받는 중진 정치인이었다.

한 표 한 표가 만든 집합의 기적

나 역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모두가 지고지순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나왔듯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민주화 투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이번 과일에 괜히 목소리

만 큰 삼류 운동권이나 똥오줌 못 가리는 막가파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노무현 탄핵 사건 이후 ‘단돌이’들이 양산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파동 역시 일장의 드라마였다. 비례대표 2번으로 자신을 ‘셀프 공천’하면서 당내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당무를 거부하다가, 마치 못해 받는 것처럼 비례대표 2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결국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의 진짜 속내요, 목표였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총선 혁명에 준하는 ‘집합의 기적’을 보여 주었다. 국민의 재책으로 내리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은 준엄했다.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야권단일화를 이루어 냈으며, 교차투표를 통해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제3당의 위치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제 비로소 한국에서도 독일의 연정을 연상케 하는 정치 행태를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보를 표방한 정의당에게도 국회에서의 활동 영역을 제공했다.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집단이성의 메시지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과연 정치는 삼류였지만, 우리의 유권자는 일류였던 것이다.

기고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한국 대표 문화축제로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이야기가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광주형 프린지페스티벌이 태동하게 된다. 에든버러의 예에서 보듯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의 문화·예술·관광을 견인하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세인의 주목받는 이유이다. 8개월간 열리는 2016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 문화예술의 랜드마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주변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해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을 통한 광장 중심의 도시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지난해 10월 문화전당 개관 당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공연, 전시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과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문화전당 행사와 협업을 통해 페스티벌을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하는 여타 프린지와 달리 ‘금남로 차있는 거리’, ‘5·18광장’, ‘대인예술아시아장’, ‘예술의 거리’, ‘푸른길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연계해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마다 ‘청년의 거리’, ‘버스킹 공

연’을 함께 운영한다.

축제를 상설화해 광주에 가면 언제나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브랜드화해 국내외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작공연 경연의 장으로 만들어서 공연예술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재단, 예총 등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주, 콘서트, 전시회,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공연 40여개의 단체가 참여해 프로그램과 일정을 조정했다.

이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국내의 아마추어 단체는 물론 전문 예술단체의 시선도 광주로 향하고 있다. 벌써부터 재즈, 마임,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개최 원년부터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성장할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기대대

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참가 등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금남로 보행환경개선, 금남로, 광주천 야간경관 조성, 옛 도청분수대 하루 시민광장 조성, 문화전당 돌레길 조성, 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거리 조성, 지하상가와 연계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상설공연도 준비중이고 중장주에는 젊음의 문화와 소풍, 그리고 패션의 거리로 조성한다. 금남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유로운 거리문화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의 기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평소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게 된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아시아의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 선보일 수 있도록 우수 예술단체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광주를 대표하고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정촌 특·특

투표는 정치 참여의 끝이 아니다



이지선 광주여대 어린이영어교육학과 3년

기에 취해 봄을 즐길 생각만 가득한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게 ‘투표’이기도 하다.

선거하는 날을 그저 하루 쉼 수 있는 공휴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자격이 있을까? 투표 하지 않는 청년들은 당장 자신의 삶이 정치와 큰 상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투표를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무엇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다며 불평만 늘어 놓기도 한다. 치열한 취업 전선에 목숨을 걸고 몰두하며 팍팍한 현실을 원망하고 있지만, 정작 투표라는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분명히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왔다. 정치 참여는 일부 특정인들이 아닌 모든 국민의 몫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이 투표라고. 이 투표권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역사에서는 극히 일부 귀족 혹은 시민들의 만이 가질 수 있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개혁으로 이루어낸 역사적 산물

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보통선거가 이뤄졌던 1948년 5월10일 총선거에서는 무려 95.5%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힘들게 주어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이끌어야 할 한국에서 더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세우고 싶다면 나라라고 불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투표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투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한 표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표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뀔 사례들이 세계 역사에 적잖게 있다. 1875년 프랑스에서는 계속 왕국을 할 것인지 공화국 시대를 열 것인지의 두 표가 시 행되었다. 한 나라의 국가 형태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표였고, 왕당파와 공화파의 국회의원 수는 똑같이 353명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일 왕당파 의원이 급성 복통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공화국이 세워졌고, 이 공화당의 몰락 또한 1명의 반대대표의 역할이 있었다.

이보다 더 이전 1645년 영국에서 독재정권을 잡았던 크롬웰도 1표 차이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초기 역사 또한 1표의 차이로 강력한 후보였던 아론버르를 이기고 미국 독립선언서 초안을 잡고 행정제도를 구상한 인물로 알려진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투표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결과도 단정 지을 수 없다. 나 하나 더 하고 안 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20대 투표율은 49.4%, 28.1% (18대)와 41.5%(19대)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더 이상 남이 운영하는 국가에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노동자에 불과하지 않길 바란다. 선거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선거철이면 20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이 나라가 청년들의 ‘눈치’라도 볼 수 있도록..

社說

총선 끝난지 며칠 됐다고 벌써 싸움질인가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곱과 싸움이 되풀이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너무나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표 달라고 읍소했던 다짐은 간데없고 곳곳에서 밥그릇 다툼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특히 수도권 압승으로 제1당이 오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당권을 놓고 갈등이 도지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합의 추대 문제가 화약고다. 김 대표가 제2기 비대위원 인선 후 푹 부러져 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측근들을 대거 당직에 임명한 게 화근이다. 김 대표가 인사를 통해 사실상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옛것에 언론 인터뷰에서 “당에서 총의로 합의추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스스로 나서기는 결기했지만 ‘불참청고소원’(不敢講固所願)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아왔

던 이 모 의원을 조직본부장에,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 박 모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당권 도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총선 전 공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셀프공천에 이어 셀프대표는 처음 들어 본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탈당 후 당선된 이해찬 의원의 ‘사실 개입론’도 불거져 전당대회까지 김종인 대표-진노(진문) 주류 진영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새 지도부 구성과 무소속 당선자의 당 복귀 허용 여부로 친박-비박간 한바탕 회오리가 예상된다.

더민주의 호남에서 조만간 낙선 인사로 민심 회복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술한 사과는커녕 싸움질부터 먼저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을 열어 주겠는가. 난파 직전인 새누리당 또한 구태를 답습하는 만큼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사범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끝내야

20대 총선 관련 첫 구속자가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 박준영 당선인(영양·무안·신안)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6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총선 당선인이 벌써 1백 명이 넘는 가운데 6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더민주 김진표, 새누리당 박찬우, 무소속 이광우 당선인 등의 선거 사무실은 선거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선관위로부터

터 고발을 당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선인 수는 지난 19대 때보다 무려 30%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16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서 당선인은 104명이다. 전체 300명 중 104명이니까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은 검찰에 불러 나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9대 때 입건자는 79명이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한 사법 처리 수위에 따라 금배지 반납 사례가 잇따를 경우 내년 4월12일 대규모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4·13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방침에 대해 여소야대를 바꾸려는 것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검찰이 엄중하고 공평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 수사 와 기소 및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화산 폭발의 흔적은 멀리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아닌 지척의 광주 무등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돌기둥 형상을 한 입석대·서석대 주상절리가 그 증거이다. 9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흘러내린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표면에 수직 방향의 균열이 생겼다. 이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얼고 녹으면서 바위틈이 차츰 벌어졌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풍화·침식이 반복되며 오늘날의 돌기둥 모양

**불의 고리**

분간할 수 없었고 하늘은 어두컴컴하였 습니다.”(1553년·명종 8년 3월 24일)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최근 강진이 발생했다.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대인 ‘환태평양 조산대’는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해 일명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린다. 첨단 과학 시대에 살면서도 지구의 내부 화산활동에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지진과 같은 범지구적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초월해서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투로 발행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